

재외도민의 실상과 재외도민회협의회의 역할

전 병 돈*

지금 우리고장 제주도는 현재 53만 제주거주 도민과 제주가 고향인 역시 5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제주도민이 함께 『100만 제주인 시대』를 우리힘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며 정보화, 국제화 물결로 국경을 허물며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100만 제주인은 이런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속의 제주”로 의식전환을 위한 지혜와 중지가 모아져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인재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우리 50만 재외 제주도민은 이미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지구촌 곳곳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활약하는 유능한 석학들이 많으며 이러한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전진 배치 되어 있다는 것은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큰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100만 제주인』을 주제로 한 이 학술세미나도 제주도가 표방한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 나가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저의 발표는 그동안 도민회와 도민협의회에 다년간 몸담아 오면서 각 지역 도민회를 방문하고 몸소 피부로 느낀점 등을 체험담 식으로 발표 하고자 합니다

1. 재외도민의 실상

우리는 암울했던 시절 정든 고향을 등지고 미지의 생활 전선에 뛰어들 1세대들이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930~40년대 식민지 시대 고향을 떠난 재외도민의 실태는 대략 국내 내륙지역과 일본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① 내륙지역

- 목포, 광주, 전주, 서울로는 진학 학생의 주종을 이루었고
- 부산을 중심으로 동해, 남해안 일대에는 해녀와 수산업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② 일본지역

- 오사카를 중심으로 관서지방에는 공업지역으로써 오사카~제주간 정기연락선의 운항했기 때문에 20~30대 남녀가 단 순노동을 위해 인력 시장에 뛰어 들었고
- 동경을 중심으로 관동지방에는 대부분오사카에서 상당기간 일본생활이 적응되면 노동을 면하기 위해 동경으로 이주 상업 및 서비스업종 쪽으로 주종을 이루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면서 주로 연고를 따라 친지가 있는 내륙이나 일본으로 떠났고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친지, 동네 선후배, 동향인과의 우의와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인간관계를 중시했으며 상호 경조사가 생기면 서로 돕다보니 친목모임도 이루어져 집단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기도 했다

그 좋은 예로 국내는 부산영도(影島), 일본 오사카(大阪)에는 이쿠노꾸, 이카이노(生野區, 猪飼野), 도쿄(東京)에는 아라카와구, 미카와시마(荒川區, 三河島) 등은 완전히 제주타운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민이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자연발생적으로 각 지역별로 도민회가 탄생하게 됐다

제주출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재외제주도민회가 구성된 곳을 살펴보면 국내에는 서울 150,000명, 부산 220,000명, 대구 200명, 인천 6,000명, 광주 100명, 대전 400명, 울산 30,000명, 경북 11,000명, 경남 1,000명, 서부경남 4,000명, 춘천 50명, 안산 2,500명, 영북 1,500명 등 13개 지역이며 외국은 일본의 동경 43,000명, 대판 74,000명, 센다이 300명 등 3개 지역과 미주에는 뉴

*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 사무총장

육 500명, LA 600명, 시카고 300명, 워싱턴 1,000명, 미시간 100명, 아틀란타 100명 등 6개 지역과 캐나다는 토론토 100명, 밴쿠버 100명 등 2개지역으로 총 11개 지역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24개 도민회에 총 재외도민수는 국내 424,000명과 국외 120,000명 등 총 544,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특히 재일동포의 생활실상을 살펴보면

67만명 규모의 재일동포 사회에서 제주출신 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약 117,000여명에 달한다. 출신 지역별 비율에서도 경상도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약50만 재외도민 수를 감안한다면 이들 제주도 출신 재일동포의 비중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높은 이민비율은 갖가지 역사적 배경과 요인이 작용한 탓이지만 오늘날 제주도 발전에는 제주출신 동포들이 애함과 공헌이 적지 않게 기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 전기, 전화, 상수도, 마을회관건립, 교육시설, 도로포장, 감귤묘목보내기운동 등 제주출신 재일동포들의 고향사랑은 남다른 것이었다.

◎ 도민회별로 실상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관서도민회이며 2, 3세를 위한 장학사업은 서울, 부산, 서부경남, 뉴욕도민회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 서울의 경우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수속이 진행중에 있다.

특히 서울은 광역화된 도시로 제주인이 집단화된 공동체 형성이 어려웠으나 김포공항에 인접한 「탐라영재관」의 2001년 초 준공되면 서울 중심의 도민회합과 공동체식 결집에 결정적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서울로 유학온 제주출신 3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제주 농수축산물특판장 등 많은 제주인의 입주가 이루어지면 제주인의 주거의 판도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양친구 목동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원희룡씨가 당선되므로써 양친구민과 제주인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양친구와 영재관이 소재한 강서구를 중심으로한 제주인이 집단화되는 시대가 올것으로 본다.

◎ 여기서 우리가 강인한 제주의 여인상을 한가지 소개하면

강인하고 활동적이면서도 맑음이 남편을 따라 또는 현지 남편을 두고 훌륭히 내조하고 계신분들이 자기의 경제적 활동역량을 드러내어 독자적 활동을 하는 분도 많고 우리나라 3편의 바닷가에서 물질하는 할머니, 어머니 해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로 경남 통영시에는 제주출신 해녀 약220여명이 현지에 정착하여 집단거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사단법인 통영나잠제주부녀회를 99년도에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제주인의 강인성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2. 재외도민회협의회의 역할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는 1996년 10월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서부경남, 재일본, 관서, 재미 등 12개 각지역 도민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발족 하였고 뒤이어 춘천, 안산, 강원영북도민회가 추가로 신규가입 하므로써 현재 15개 도민회가 정식회원으로 되어 있다.

재외제주도민회는 회원간 친목도모와 교류를 통하여 재외제주도민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00만 내외 제주인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세계속의 제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학술회의도 개최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출타한 우리 1세들의 유형을 보면 제주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육지로, 외국으로 나온 유형과 학교와 직장 또는 사업상 진출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학계, 정계, 예술계, 경영인 등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은가 하면 어려운 환경속에 생활하는 도민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하게 공부시켜 훌륭히 성장하고 있는 2, 3세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도당국에서 운영중인 재외도민 2, 3세자녀를 위한 하계향토학교는 백년대계를 내다본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7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651명이 수료하였다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2~3세에게 제주인의 자존과 긍지를 갖게 할것인가에 대한 노력의 결실로써 먼 훗날 나타날것으로 사료되며, 효과면에서도 제주가 조상이 묻힌곳 고향이라는 인식을 도당국에서 운영중인 재외도민 2, 3세자녀를 위한 하계향토학교는 백년대계를 내다본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제도는 1978년도 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651명이 수료하였다.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2~3세에게 제주인의 자존과 긍지를 갖게 할것인가에 대한 노력의 결실로써 먼 훗날 나타날것으로 사료되며, 효과면에서도 제주가 조상이 묻힌곳 고향이라는 인식을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본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의도 2, 3세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일본, 미주지역에까지 독려하고 있다.

50만 재외도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외제주도민협회에서도 도당국과 함께 제주인이 있는 지구촌 곳곳을 찾아서 도민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성되지 못한 지역의 제주인을 끌어 안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도민협회는 도민회의 도민수가 많은 적든간에 똑같은 제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포용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재외제주도민협회회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간접, 장·단기적으로 추진 할 사업 등을 대략 열거하여 보면

- ① 제주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강연 (제주에서)
- ② 지구촌 『재외제주도민의 날』 선포 (제주에서)
- ③ 재외제주도민을 위한 『포상제도』 제정
- ④ 재외제주도민거리 지정과 가로수 심기
- ⑤ 재외도민 원로(1세대) 하계향토학교 개설
- ⑥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대화의 길이 열리면 북한 제주 도민 실태 파악 필요
- ⑦ 아직 미조직된 친목회 등을 찾아내 재외도민협회 가입독려
- ⑧ 기금조성 사업 등이다

3. 재외도민을 위한 제주도의 시책

제주도에서는 도정방침을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세계로』 정하였듯이 이제는 제주도에 뿌리를 둔 사람이라면 그 거주하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제주도민이라는 범제주도적 인식의 전환에서 우리 재외제주도민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방문기회가 없었던 65세이상의 재일동포들과, 출항잠수를 대상으로 한 고향방문사업, 태평양전쟁희생자 및 재일동포의 유골봉환사업, 제주출신 석학들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우수인력 네트워크화, 제주출신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탐라영재관 건립, 재일동포들을 위한 호적민원 무료발급, 하계향토학교 운영 등이 있다.

'97년부터 시행중인 재일동포 고향방문사업은 재일동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조선 국적자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또 출항잠수 고향방문사업은 출항잠수들이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의 기회가 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78년부터 시행중인 하계향토학교는 재외제주도민 자녀들에게 조상들이 일구어온 아름다운 제주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있다. 또 모국과 고향에 대한 애국,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각지의 청소년들과 만남의 장을 통하여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일동포 호적민원 무료발급은 지난날 제주도가 어려웠을 때 고향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준 동포들에게 다소나마 관심을 갖는 다는 면에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4. 맺는말

앞에서 언급 했지만 재일동포 출신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도이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심지어 중앙정부에서도 재외도민들을 위한 시책은 별로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재외도민들을 위해 담당부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담당부서가 있기에 재외도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가장 많이 찾는 부서이다.

21세기 미래제주 발전을 위하여 담당부서도 「과(課)」,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외도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도 문제지만 날로 증가하는 재외도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기구 확대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도 당국의 의지도 중요 하지만 재외 제주도민협회회의도 고향의 발전과 도민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